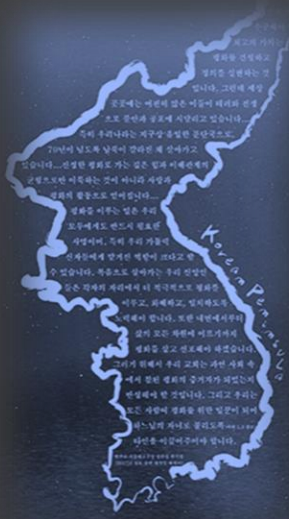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갑삼 / 부동산학 박사, 건축사

2021. 08.13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2
II. 이론적 고찰	1. 접경지역 개념 및 특성	03
	2. 접경지역의 경제 여건분석	04
	3. 선행연구 검토	05
	4. 본 연구의 차별성	06
III. 연구설계	1. AHP 분석	07
	2. AHP 설문지 구성	08
	3. AHP 설문조사 내용	09
	4. 설문조사 AHP측정을 위한 계층화와 변수선정	10
	5.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11
	6. 접경지역 연구 지표별 가중치 비교	12
	7. 종합가중치의 우선순위 분석	13
	8. 회귀분석 연구 모형	14
	9. 회귀분석 연구가설 설정	15
	10. 회귀분석 조사설계	16
	11. 설문 구성 항목 및 내용	17
	12. 변수 선정의 이론적 근거	18
	13. 통계 분석 방법	19
IV. 실증분석		20
V. 결 론		3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통일한국 대비 남북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의 중요요인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대외적 여건 변화

- ◆ 세계화의 진전으로 접경지역의 역할과 기능 변화
 - 베를린 장벽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 상호교류의 제약에서 벗어나 협력의 공간으로
 - 폐쇄된 공간에서 개방적 공간으로 공간특성 변화
- ◆ 북한 핵 위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글로벌 이슈화
 - 비핵화 관련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 연속 개최
 -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대내적 여건 변화

- ◆ 접경지역 중심의 「통일경제특구」구상발표(2018.8.15,대통령)
 - DMZ 인근 접경지역이 남북한 경제통합, 경제공동체의 거점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 증대
-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안 발표(2019.2.8, 행자부)
 - 중첩된 규제, 재원확보 미비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 지역의 발전기반 마련
 - 2030년 까지 225개 사업에 총 13.2조원 투자

중첩, 난립되어 있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사업계획의 내실화와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모

통일한국 대비한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의 중요 요인과 우선순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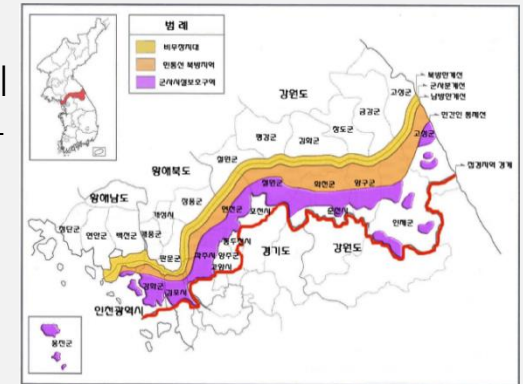


I. 서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접경지역지원법’이 최초 제정된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함
- **지역적 범위** : 3개 시·도 지역내 15개 시·군
 - 인천광역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7) :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 강원도(6) :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접경지역 중 대표적인 발전지역(강화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과 낙후지역(연천군, 포천시, 철원군)을 구분하여 접경지역발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의 우선순위 인식도를 연구함.

단, 박사논문에서는 수도권(김포, 파주, 고양)과 강원권(고성, 철원, 양구)으로 구분하여 설문

□ 연구방법

- 양적 통계분석

공무원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대상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분석

박사논문

AHP 분석으로 도출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설문지 구성하여 일반인(접경지역 거주자)을 대상으로 SPSS 통계분석



Ⅱ. 이론적 고찰

1. 접경지역의 개념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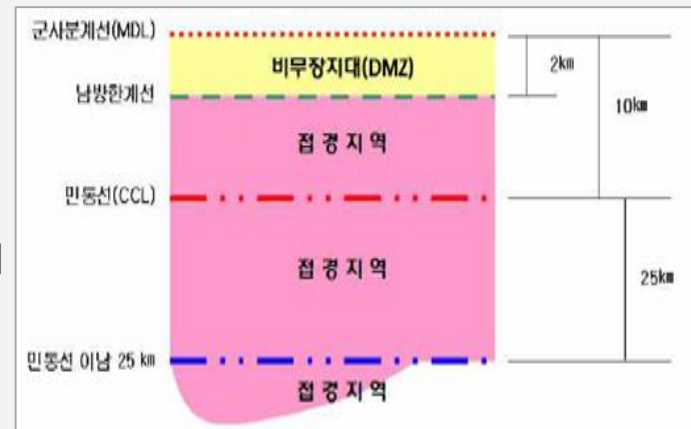
□ 접경지역의 개념

- 프란츠(Franz, 1970) : 경계를 나타내는 표 혹은 두 지역을 서로 구분하게 해주는 취락이 적거나 취락이 없는 지역
-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1992 ~2001)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관련법령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 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도: 춘천시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 접경지역의 특성

-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 및 수도권 정비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임.
- 지리적 고립성과 낮은 인구 밀도, 거주 환경의 불리 및 지역경제의 낙후 등은 접경지역의 이용에 있어서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개발의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이용과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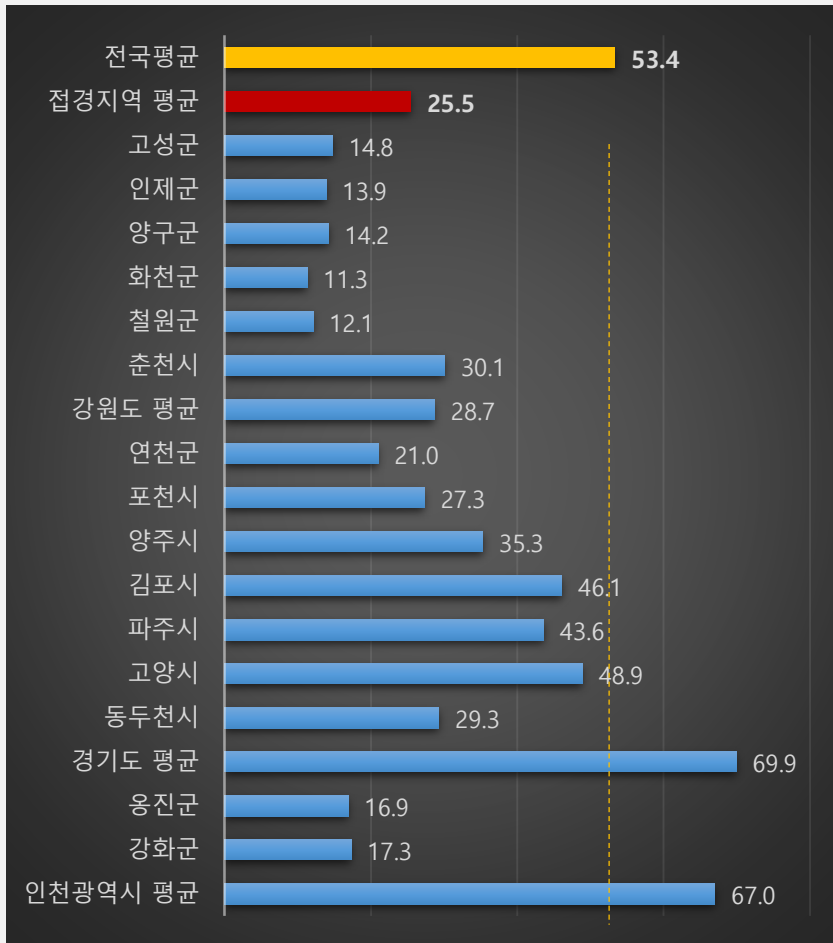
II. 이론적 고찰

2. 접경지역의 경제 여건분석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3.4%)보다 훨씬 낮은 10~40%대의 수준이며,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전국평균(1.9%)보다 높은 평균 6.5%정도이고 제조업은 평균 14.5%로 전국평균(26.7%)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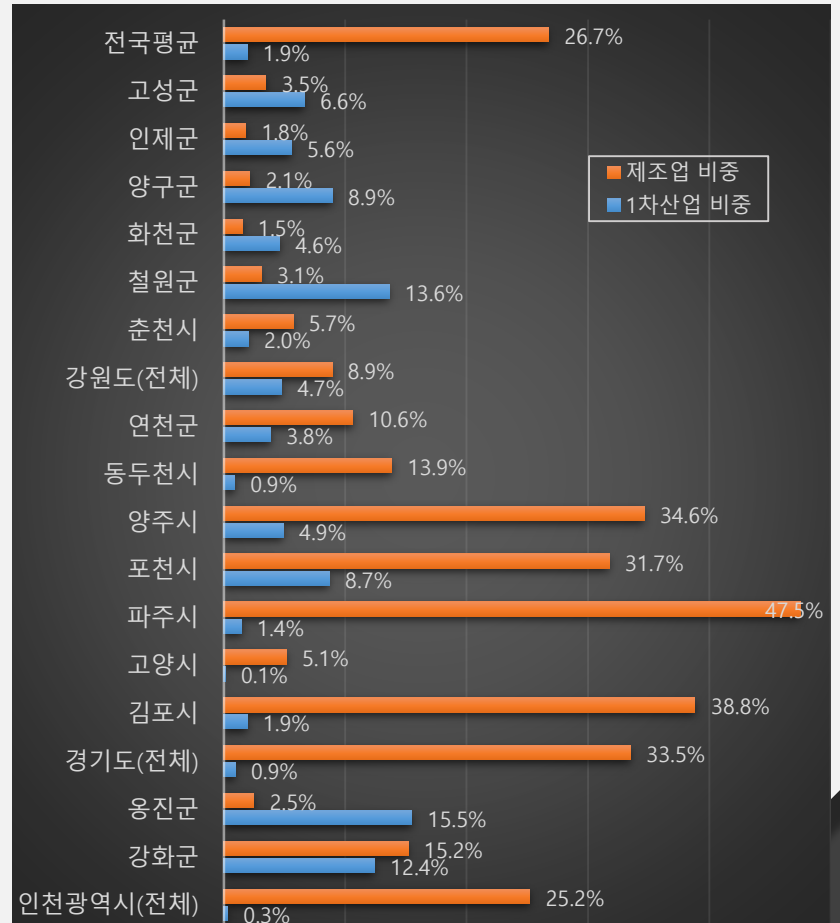
□ 재정 자립도

(2018년 기준)



□ 산업구조(GRDP)

(2016년 기준)





Ⅱ. 이론적 고찰

3. 선행연구 검토

- ◆ **국내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관점에서의 접경지역 연구,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존 문제와 관련된 연구, 접경지역을 정치적 국경이 아닌 접촉지점으로 인식한 연구,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외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 남북한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등으로
- ◆ **이 중 남북한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이종호	2010	남북한 접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적 이용 연구	문헌 연구
서영배 외	2007	DMZ 보존과 활용의 제반 문제	문헌 연구
김문기	2010	한반도 접경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판문점 지역을 중심으로	SPSS 분석
김영봉	2009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AHP 분석
최용환	2006	경기도 남북교류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문헌 연구
박성조	2007	경기도-북한 접경지역 협력 및 공동개발: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
박성조 외	2007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사례 연구
김형수 외	2017	마르티네스의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	모델 연구
이해영	2016	휴전선 접경지역 학생들의 북한과 통일인식	참여 관찰
심재정	2016	접경지역 군사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 연구
문장순	2004	접경지역계획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 연구
이상재 외	2017	남북철도 화물운송체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 연구
조성제	2018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입법 연구
이상만	2007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문화교류 방향과 과제	정책 연구
김상민	2003	국제회의도시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에 관한 실증 연구	정책 연구
양종현	2013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 분석	정책 연구
유진이	2010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방향	정책 연구
김현호	2013	접경지역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과 과제	입법 연구
주제복	201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	요인 분석



Ⅱ. 이론적 고찰

4.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대상, 연구내용 및 변수선정 방법 등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차별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이 필요 한 발전 가능한 요인을 도출하여 제시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와 학문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음.

구분	기존 선행연구	차별화 요소
연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문헌연구와 정책제안 연구에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HP분석 방법 적용하여 시행방안 우선순위 도출 → 도출된 우선순위에 근거한 일반인(접경 지역 거주자) 대상 SPSS 통계분석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지역의 관광, 레저, 지가상승, 외국인 투자유치방안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의 최대유효측면에서 실제 실현가능한 공간활용대안 제시 접경지역발전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의 우선순위 인식도 연구
변수 선정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전문가 1:1 대면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측정 항목 설정 후 설문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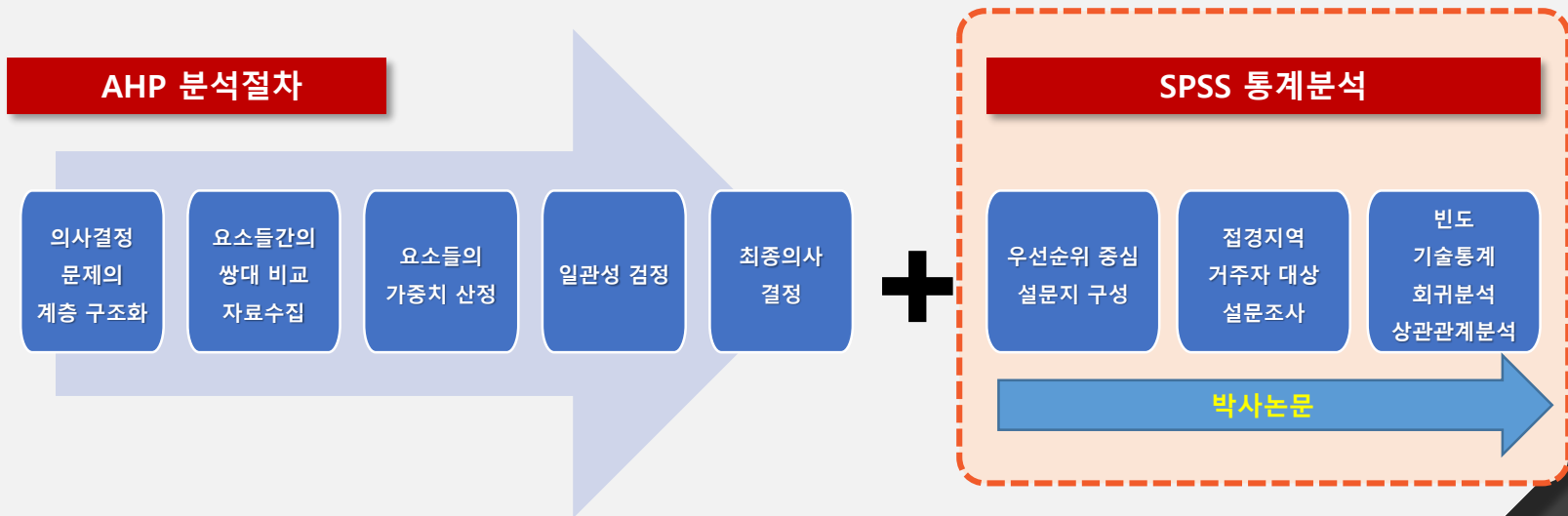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1. AHP 분석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분석의 개념 및 특징

- ◆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면적인 평가기준과 다수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방법
 - 평가기준들을 계층화 하고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정하여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으로 대안들이 다양한 평가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우선 순위에 있는 지를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 평가자 개인이 가지는 오랜 경험이나 직관을 중시하여 계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평가 가능
 - 비율척도를 통해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문제를 점차 작은 요소로 분해하고 분해된 요소들의 단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문제해결 가능.





Ⅲ. 연구 설계

2. AHP 설문지 구성

설문지 항목구성을 위한 선행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	DMZ “생태·평화Zone” 설정 (이종호, 2010), (서영배 외, 2007)
		국제평화 컨벤션 센터 건립 (이상만, 2007), (김상민, 2003)
		접경지역의 평화 교육단지 지정 (이해영, 2016), (문장순, 2004)
		접경지역간 평화 “Road” 조성 (김영봉, 2009)
	중장기 산업전략 수립을 위한 선택과 집중	新성장 동력사업 추진 (박성조, 2007), (유영상, 2007)
		4차산업, 접경지역별 특화발전 단지 조성 (김형수, 이필구, 2017)
		역사·문화자료를 통한 관광개발 (김문기, 2006)
	부동산, 교통 Infra 확충	동서-남북 간 연계 교통망 구축 (심재정, 2017)
		자원 공급 및 운송망 설치 (이상재 외, 2017)
접경지역 지원육성 및 제도개선	낙후 이미지 개선을 위한 Change up 개발 추진	접경지역 지자체의 “공유 거버넌스” 구축 (주재복, 2013)
		대학 병원과 재활, 요양병원 유치 (양종현, 2013)
		남북 청소년 교류/교육센터 건립 (유진아, 2010)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통한 법/제도적 개선	접경지역 지자체별 특화 문화 행사 개최 (김현호, 201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조성제, 2018)

AHP 설문지 구성

: 상기 연구지표를 중심으로 기본 통계 분석사항 포함하여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



Ⅲ. 연구 설계

3. AHP 설문 조사 내용

◆ 조사대상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접경지역에 대하여 지식이 있고 당해 지역 인근에서 근무 및 거주하는 전문가 집단 중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총 56명을 평가대상자로 선정

◆ 조사방법 : 직접 방문, 1:1 개별면담과 설문 조사 시행 (48명 응대, 응답률 85.7%)

◆ 조사기간 : 2018. 10. 11. ~ 2019. 1. 15.

◆ 조사지역 : 접경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발전지역(강화, 고양, 김포, 파주)와 낙후지역(연천, 포천, 철원)

※ 설문 평가대상자의 표본 및 응답 현황

평가 대상자 분류		설문 배포	설문 응대	응답률
대학 소속	교수/연구소 연구원(부동산)	13	11	84.6%
K 연구원	북부지역 Center(교통)	5	4	80.0%
	공존사회 연구실(도시계획)	8	6	75.0%
G 발전 연구원	성장 동력/지역사회 연구실	14	12	85.7%
지자체 담당 공무원	7개 지자체 지역경제 담당	16	15	93.7%
총 계		56	48	85.7%



Ⅲ. 연구 설계

4. 설문조사 AHP 측정을 위한 계층화와 변수 선정

접경지역 지표의 부문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측정 지표의 계층구조 구축과 변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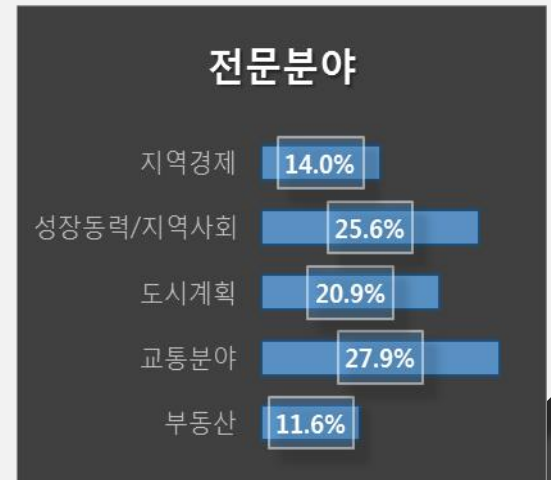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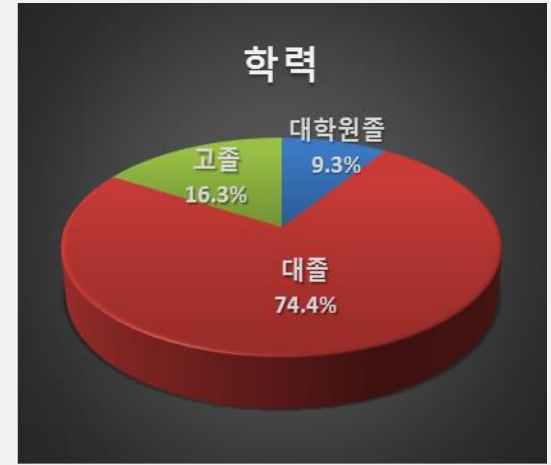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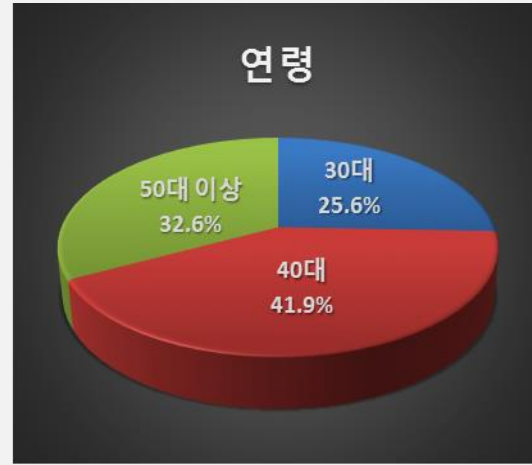
대분류(2)	중분류(5)	소분류(15)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	통일을 대비한 평화 교육단지 및 생태. 평화공원 조성
		남.북 청소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국제평화 컨벤션 센터 건립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新성장 동력사업 추진
		4차산업기반 특화 발전 단지 조성
		자원 대동맥 연결을 위한 자원 공급망 추진
	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동서-남북 간 연계 교통망 구축
		접경지역간 연계 교통망 개선
		접경지역간 평화"ROAD" 조성
접경지역 지원육성 및 제도개선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육성	범 정부차원의 특별 예산지원
		대학병원과 재활, 요양병원으로 Clean-Health City 구축
		역사.문화 자료 발굴을 통한 관광개발 및 문화행사 개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지정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의 "협치 체계"구축



Ⅲ. 연구 설계

5.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조사 참여 및 일관성 검증을 통과한 최종 유효표본 43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Ⅲ. 연구 설계

6. 접경지역 연구지표별 가중치 비교

AHP 분석기법으로 접경지역 연구지표를 대,중,소 분류별로 가중치를 도출하고 일관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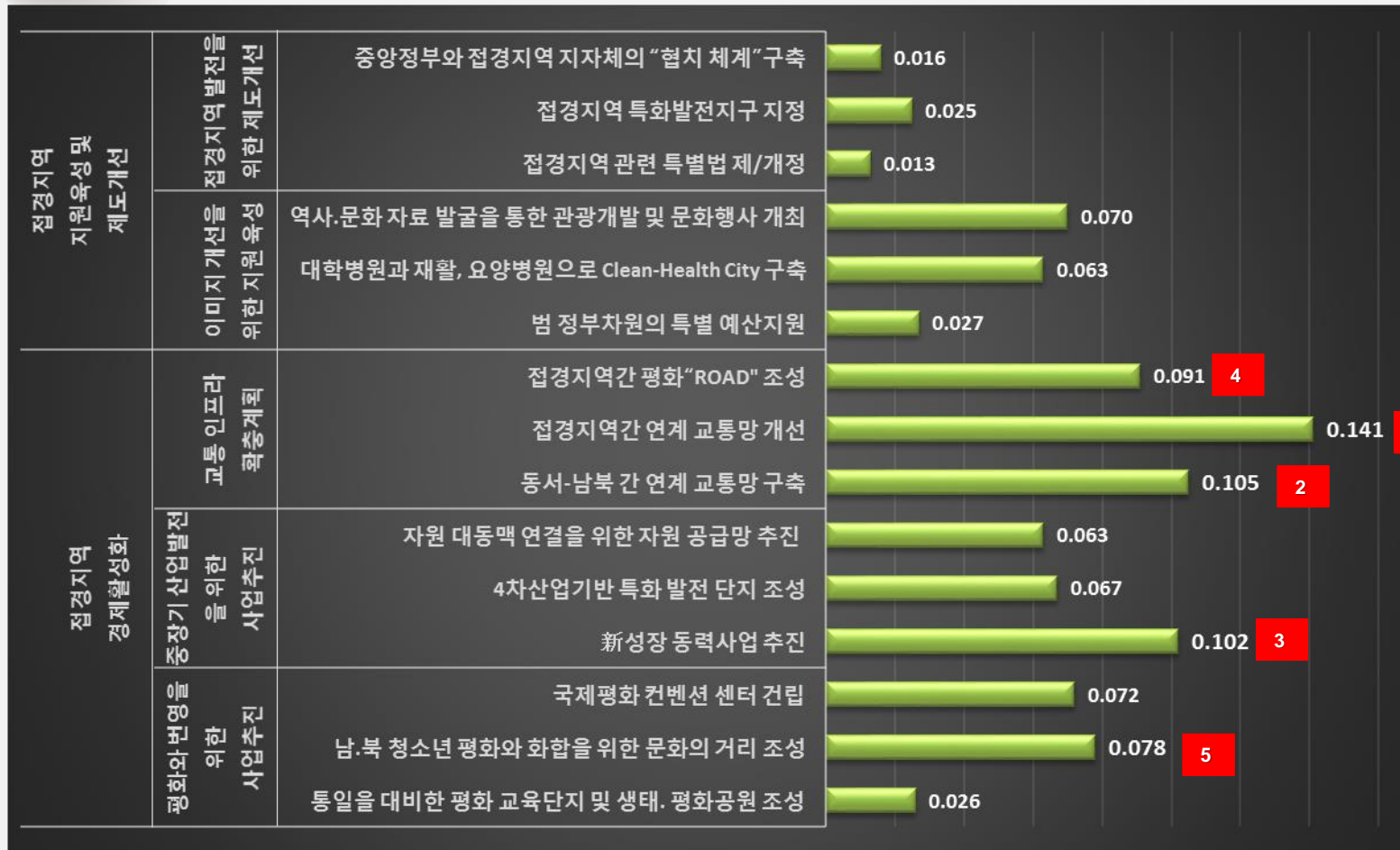
대분류 항목(2)		중분류 항목(5)		소분류 항목(15)		
항목	가중치	항목	가중치	항목	가중치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0.75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	0.237	통일을 대비한 평화 교육단지 및 생태. 평화공원 조성	0.151	
				남.북 청소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0.441	
				국제평화 컨벤션 센터 건립	0.408	
		중장기 산업발전을	0.310	新성장 동력사업 추진	0.439	
				4차산업기반 특화 발전 단지 조성	0.290	
				자원 대동맥 연결을 위한 자원 공급망 추진	0.271	
		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0.453		동서-남북 간 연계 교통망 구축	0.308
					접경지역간 연계 교통망 개선	0.413
					접경지역간 평화"ROAD" 조성	0.269
					범 정부차원의 특별 예산지원	0.306
접경지역 지원육성 및 제도개선	0.246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육성	0.780	대학병원과 재활, 요양병원으로 Clean-Health City 구축	0.328	
				역사.문화 자료 발굴을 통한 관광개발 및 문화행사 개최	0.366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	0.232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0.220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지정	0.472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의 "협치 체계"구축	0.296	



Ⅲ. 연구 설계

7. 종합 가중치의 우선 순위 분석

AHP 분석의 최종단계로서 15개 소분류 항목의 종합 가중치*1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판단



*1 : 종합가중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Ⅲ. 연구 설계

8. 회귀분석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접경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중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함.





Ⅲ. 연구 설계

9. 회귀분석 연구가설 설정

접경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함.

[가설 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면 접경지역은 발전 및 활성화 될 것이다.

[가설 2]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면 접경지역은 발전 및 활성화 될 것이다.

[가설 3]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면 접경지역은 발전 및 활성화 될 것이다.

[가설 4] 주민복지 및 문화행사를 하면 접경지역은 발전 및 활성화 될 것이다.

[가설 5] 관광개발을 하면 접경지역은 발전 및 활성화 될 것이다.

[가설 6] 접경지역 제도개선을 하면 접경지역은 발전 및 활성화 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0. 회귀분석 조사 설계

실제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이 경험하는 접경지역 발전방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HP 분석에서 도출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설문 구성 및 검증

- ◆ **조사대상** :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일반인
- ◆ **조사방법** : 접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 ◆ **조사기간** : 2019년 7월 15일부터 2019년 8월 6일까지, 3 주간, 총 21일
- ◆ **조사지역**
: 경기권 접경지역(고양, 김포, 파주시)로부터 강원권 접경지역(고성, 양구, 철원군) 등 전체 6개 지방자치 단체
- ◆ **조사 표본**
: 각 시, 군별 150부 씩을 배정하여 총 900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균등하게 표본을 구축



Ⅲ. 연구 설계

11. 설문 구성 항목

접경지역에 대한 기본적 인식 정도(7개 문항),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30개 문항),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 효과(6문항),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구통계학적 특성(8개 문항) 등 총 51개 항목으로 구성

항목	내용	설문항목	문항 수	척도
접경지역에 대한 기본적인식 정도	-접경지역의 발전 가능성 여부 -접경지역의 중요성 인지 여부	01	7	명목 서열 비율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요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주민 복지 및 문화 사업 -관광개발 소재 육성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 개선	02	30	등간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의 효과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의 기대 가치/효과	03	6	등간
일반적/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직업 등	04	8	명목 비율
총 계			51	-



Ⅲ. 연구 설계

12. 변수 선정의 이론적 근거

변수	설문내용	참고문헌	
독립 변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통일을 대비한 평화 교육단지, 문화의 거리, 컨벤션 센터, 접경지역간 평화 길(ROAD), 도보 둘레길 조성	김상민(2003) 박삼옥 외(2005) 김문기(2006) 박성조(2007) 김영봉(2009) 이종호(2010) 유진이(2010) 양재현(2013) 김현호(2013) 이혜영(2016) 김형수 외(2017) 이상재 외(2017) 조성제(2018)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4차 산업기반 특화 발전단지新성장 동력사업과 UN 평화 산업단지 조성, 자원 공급망에 기반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교통 인프라확충	남북, 동서 도로 및 철도망 확충을 위해 서해 평화고속도로, 동서 평화 고속, 철도 건설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대학 종합병원과 생명과학, 재활, 요양병원 유치로 Clean-Health-City 조성, 접경지역 특화 문화행사 증대 및 주민 특별 소득공제 지원 등 사회 복지체계 강화	
	관광개발 소재 육성	역사, 문화 자료를 통한 관광 개발 소재를 강화하고 생태, 평화 관광체험장 조성, 접경지역 관광 명소 간 등산로 및 자전거길, 청소년 체류형 문화 관광 체험관 건립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적 개선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 특화발전지구 지정, 조세지원 및 특별기금 조성, 중앙정부와 협치체계 구축	
종속 변수	접경 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성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 정도	최용환(2006) 서영배 외(2007) 이상만(2007) 주재복(2013) 심재정(2017)



Ⅲ. 연구 설계

13. 통계 분석 방법

최종 취합한 설문 응답 표본 817부 중에서 73부의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거한 총 774부의 유효 표본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 하였고
SPSS 2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진행



1. 설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카이스퀘어 검정),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을 통한 평균차이 검정
2.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검증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모형 적합도 평가 및 연구가설 검증
3.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의 그룹별 분류기준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IV. 실증 분석

1

표본의 일반적/인구통계학적 특성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4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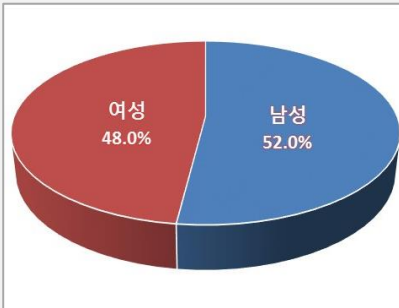


IV. 실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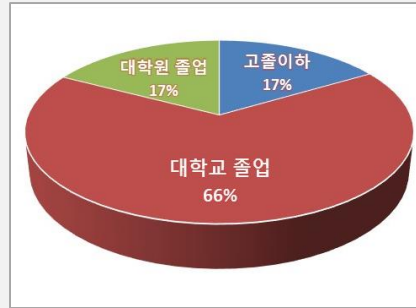
1. 표본의 일반적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 취합한 2차 설문 응답 표본 817부 중에서 73부의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거한 총 744부의 유효 표본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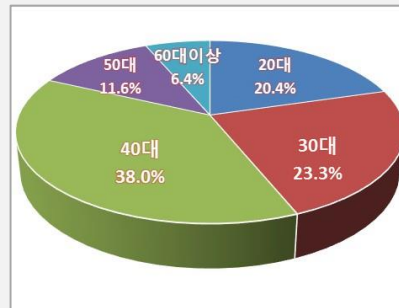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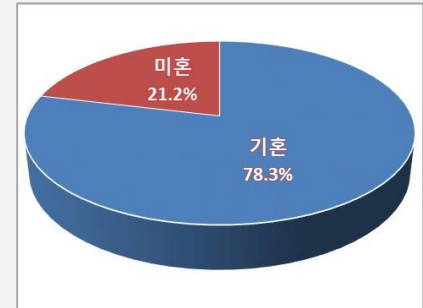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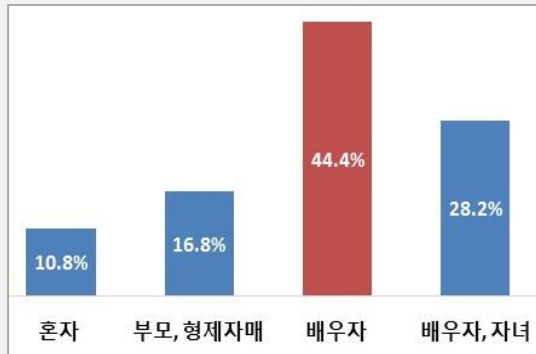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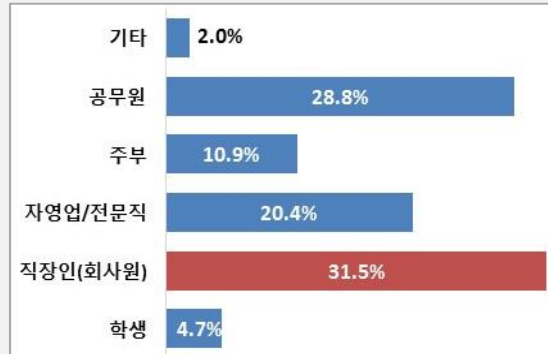
[결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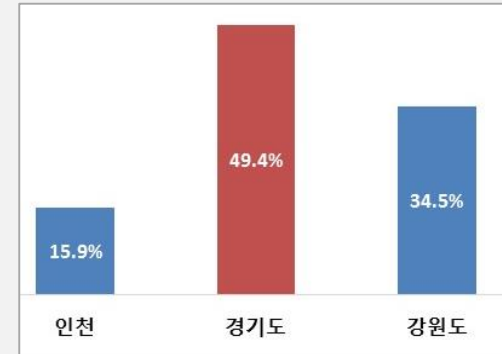
[함께 거주하는 가족]



[직업]



[거주지역]





IV. 실증 분석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1. 탐색적 요인 분석(1)

독립변수에 대한 KMO값은 0.831로 설문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독립 변수간 상관관계가 인정되며 설문항목간의 동질성과 공통요인이 존재하여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독립변수	설문문항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평화 교육단지 조성	.738	.210	.135	.187	.163	.142
	평화 ROAD, 둘레길	.821	.152	.153	.126	.156	.157
	문화, 컨벤션 센터	.752	.154	.189	.172	.152	.166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4차 산업기반 특화 발전단지	.301	.792	.162	.156	.166	.248
	UN 평화 산업단지 조성	.137	.859	.181	.237	.187	.139
	자원 공급망 기반시설 건설	.128	.753	.193	.212	.233	.116
교통 인프라 확충	남북, 동서 도로 및 철도망 확충	.212	.188	.794	.107	.122	.348
	서해, 동서 접경지역 접근성 강화	.244	.148	.814	.192	.103	.281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대학종합, 요양병원 Clean- Health-City 조성	.156	.146	.088	.772	.263	.146
	접경지역 특화 문화행사 증대	.225	.297	.117	.808	.129	.127
	주민 특별 소득공제 사회 복지체계 강화	.135	.169	.181	.832	.248	.137
관광개발 소재 육성	역사, 문화 자료 생태, 평화 관광 체험장 조성	.125	.169	.260	.211	.775	.125
	등산로 /자전거길 조성, 청소년 체험관 건립	.172	.266	.238	.272	.822	.172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적 개선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	.416	.119	.157	.267	.739	.723
	중앙정부와 협치체계 구축	.176	.225	.207	.387	.728	.814
고유치(eigen value)		2.739	2.562	2.351	2.274	2.169	2.164
설명된 분산비율(%)		18.516	16.286	15.732	15.383	13.958	14.102
누적분산비율(%)		18.516	34.802	50.534	65.917	79.875	91.551

Kaiser-Meyer-Olkin(KMO) 값 : 0.831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chi^2 = 1116.73(df=45, p < .001)$



IV. 실증 분석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1. 탐색적 요인 분석(2)

종속변수에 대한 KMO값 역시 0.819,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6개의 설문문항은 고유치가 2.739인 1개의 요인으로 요인화됨

종속변수	설문문항	요인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정도]	1
접경 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성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78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은 통일대비 접경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873
	교통 인프라 확충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733
	주민 복지 및 문화 사업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749
	관광개발 소재 육성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681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 개선은 통일대비 접경 지역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881
고유치(eigen value)		2.739
설명된 분산비율(%)		62.518
누적분산비율(%)		62.518

Kaiser-Meyer-Olkin(KMO) 값 : 0.819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chi^2 = 1378.214$, $df = 10$, $p < 0.001$



IV. 실증 분석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2. 신뢰도 분석(1)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α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판단하는데, **독립변수**의 설문문항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값이 모두 0.6이상으로 분석되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독립변수 설문문항의 신뢰도분석]

독립변수	설문문항	Cronbach's α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평화 교육단지 조성	.804	.738	.210	.135	.187	.163	.135
	평화 ROAD, 돌레길		.821	.152	.153	.126	.156	.151
	문화, 컨벤션 센터		.752	.154	.189	.172	.152	.14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4차 산업기반 특화 발전단지	.726	.301	.792	.162	.156	.166	.162
	UN 평화 산업단지 조성		.137	.859	.181	.237	.187	.174
	자원 공급망 기반시설 건설		.128	.753	.193	.212	.233	.182
교통 인프라 확충	남북, 동서 도로 및 철도망 확충	.759	.212	.188	.794	.107	.122	.148
	서해, 동서 접경지역 접근성 강화		.244	.148	.814	.192	.103	.121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대학종합, 요양병원 Clean- Health-City 조성	.772	.156	.146	.088	.772	.263	.201
	접경지역 특화 문화행사 증대		.225	.297	.117	.808	.129	.162
	주민 특별 소득공제 사회 복지체계 강화		.135	.169	.181	.832	.248	.118
관광개발 소재 육성	역사, 문화 자료 생태, 평화 관광 체험장 조성	.692	.125	.169	.260	.211	.775	.154
	등산로 /자전거길 조성, 청소년 체험관 건립		.172	.266	.238	.272	.822	.131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적 개선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	.837	.416	.119	.157	.267	.739	.739
	중앙정부와 협치체계 구축		.176	.225	.207	.387	.728	.728



IV. 실증 분석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2. 신뢰도 분석(2)

6개의 **종속변수** 요인으로부터 도출된 설문구성 항목들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신뢰도 분석 결과, 접경 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성에 대한 Cronbach's 값이 .801로 분석되어 내적 일관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됨.

[종속변수 설문문항의 신뢰도분석]

종속변수	설문문항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정도]	Cronbach's α	요인 1
접경 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성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801	.78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은 통일대비 접경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873
	교통 인프라 확충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733
	주민 복지 및 문화 사업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749
	관광개발 소재 육성은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681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 개선은 통일대비 접경 지역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881



IV. 실증 분석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3. 상관관계 분석

6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대부분 0.4~0.7 내외로 정(+)의 보통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독립변수 값이 변화하면 종속변수의 값이 이에 상응하여 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6개의 독립변수를 각각 검증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입증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교통인프라 확충	관광개발 소재 육성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적 개선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성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1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521**	1					
교통 인프라 확충	.546**	.538**	1				
관광개발 소재 육성	.445**	.514**	.552**	1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392**	.437**	.481**	.466**	1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적 개선	.615**	.627**	.792**	.655**	.565**	1	
접경 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성	.495**	.505**	.475**	.423**	.626**	.725**	1

** : p<0.001



IV. 실증 분석

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1)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6가지 가설 모두 채택 되었으며, 그 중 '교통 인프라 확충' 이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연구가설 검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공선성 통계량		검증 결과	영향력 순위
	B	SE	β			공차	VIF		
(상수)	.731	.203		5.693	.000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182	.032	.253	8.498	.000	.514	1.591	채택	2위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179	.031	.248	4.703	.000	.670	1.692	채택	3위
교통 인프라 확충	.261	.036	.269	9.498	.000	.492	1.802	채택	1위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147	.026	.212	8.602	.000	.676	1.347	채택	4위
관광개발 소재 육성	.157	.019	.208	8.559	.000	.661	1.591	채택	5위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적 개선	.139	.251	.159	6.187	.000	.537	1.152	채택	6위

$R^2 = 0.751, F = 382.693 (p < 0.001)$



IV. 실증 분석

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2)

독립변수와 기초가설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도에서는 '교통인프라 확충'에서 '남북, 동서 도로 및 철도망 확충'이 4.53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독립변수와 기초가설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도]

독립변수	설문문항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N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	평화 교육단지 조성	5	1	3.83	1.017	744
	평화 ROAD, 둘레길	5	1	3.76	1.206	744
	문화, 컨벤션 센터	5	1	3.65	1.002	744
중장기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4차 산업기반 특화 발전단지	5	2	3.21	1.106	744
	UN 평화 산업단지 조성	5	1	3.02	1.037	744
	자원 공급망 기반시설 건설	5	1	3.79	1.012	744
교통 인프라 확충	남북, 동서 도로 및 철도망 확충	5	1	4.53	1.117	744
	서해, 동서 접경지역 접근성 강화	5	1	3.98	1.092	744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대학종합, 요양병원 Clean-Health-City 조성	5	1	3.02	1.072	744
	접경지역 특화 문화행사 증대	5	2	2.84	1.008	744
	주민 특별 소득공제사회 복지체계 강화	5	2	2.93	1.132	744
관광개발 소재 육성	역사, 문화 자료 생태, 평화 관광 체험장 조성	5	1	2.5	1.054	744
	접경지역 등산로 및 자전거길 조성, 청소년 체험관 건립	5	1	2.47	1.072	744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개선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	5	1	2.19	1.047	744
	중앙정부와 협치체계 구축	5	2	3.82	1.036	744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효과성 (기초 가설)	평화와번영을 위한 사업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5	1	4.02	1.014	744
	중장기 산업발전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5	1	3.93	1.081	744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5	1	4.61	1.274	744
	주민 복지 및 문화사업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5	1	3.57	1.054	744
	관광개발 소재 육성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5	1	3.22	1.039	744
	접경지역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발전 및 활성화	5	1	2.93	1.026	744



IV. 실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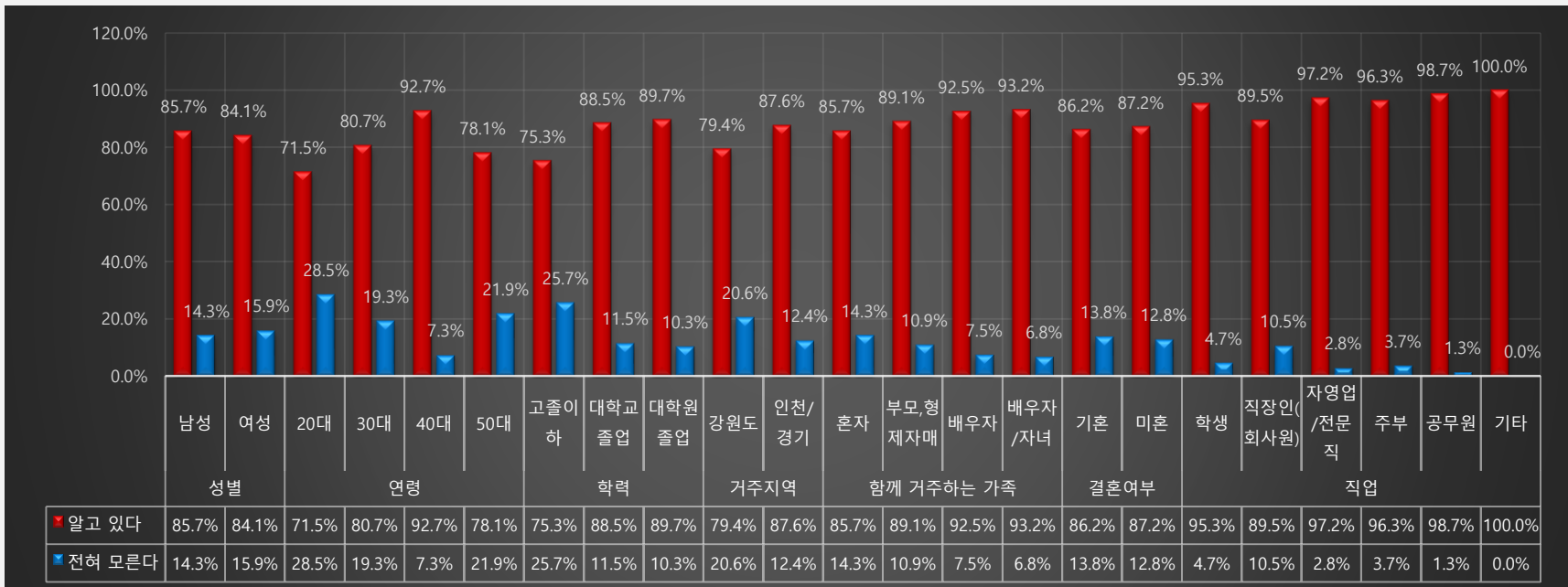
4.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1)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함.

'접경지역 활성화 필요성 인식여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 결과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역, 함께 거주하는 가족, 결혼경험 등 모든 유형에서 '접경지역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임.

[접경지역 활성화 필요성 인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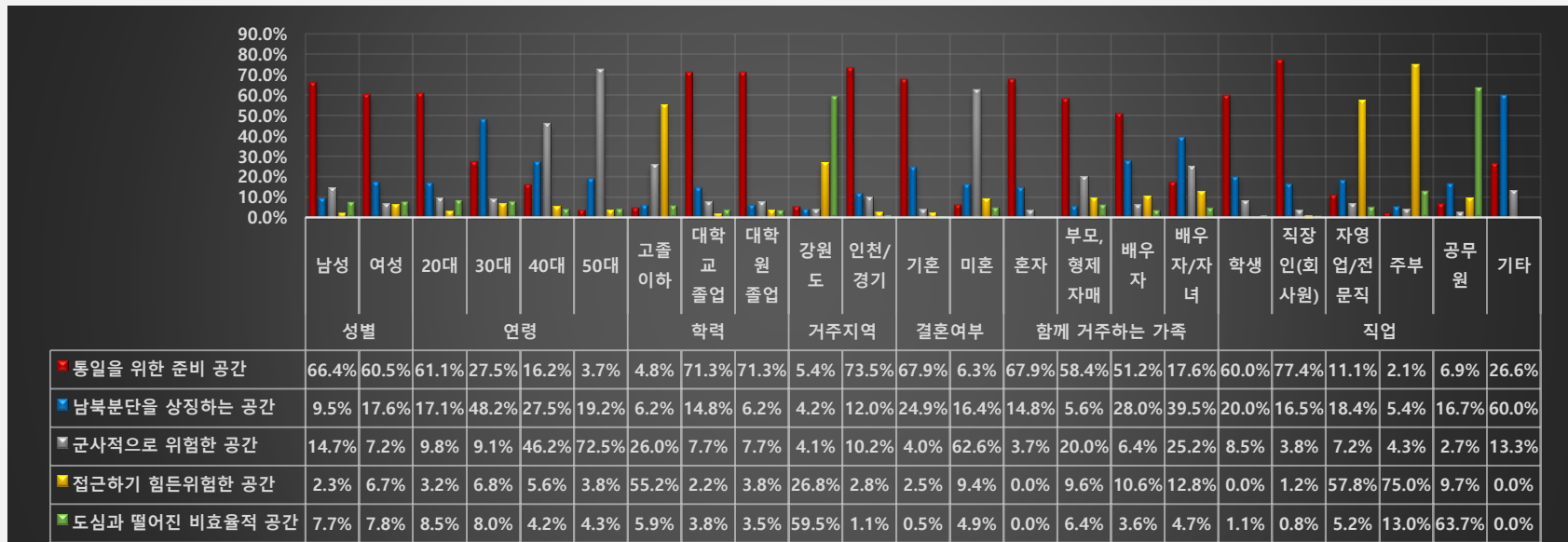
IV. 실증 분석

4.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2)

'접경지역 이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 결과

- 남성의 66.7%, 여성의 60.5%가 '통일을 위한 준비공간' 을 접경지역 대표이미지로 인식
 -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의 71.3%, 직장인(회사원)의 77.4%, 기혼자의 67.9%, 배우자와 거주하는 주거형태의 79.2% 가 동일하게 인식
 - 다만, 공무원의 73.4%, 주부의 88%가 '접근하기 힘든, 도심과 떨어진 공간' 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 특성에서 20대는 '통일을 위한 준비공간', 30대는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공간', 40대 이상에서는 '군사적 위험공간'으로 인식
- 강원도 지역거주자의 86.3%가 '접근하기 힘든, 도심과 떨어진 공간' 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천, 경기도 거주자의 85.5%가 '통일을 위한 준비공간과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공간' 으로 인식

[접경지역 이미지에 대한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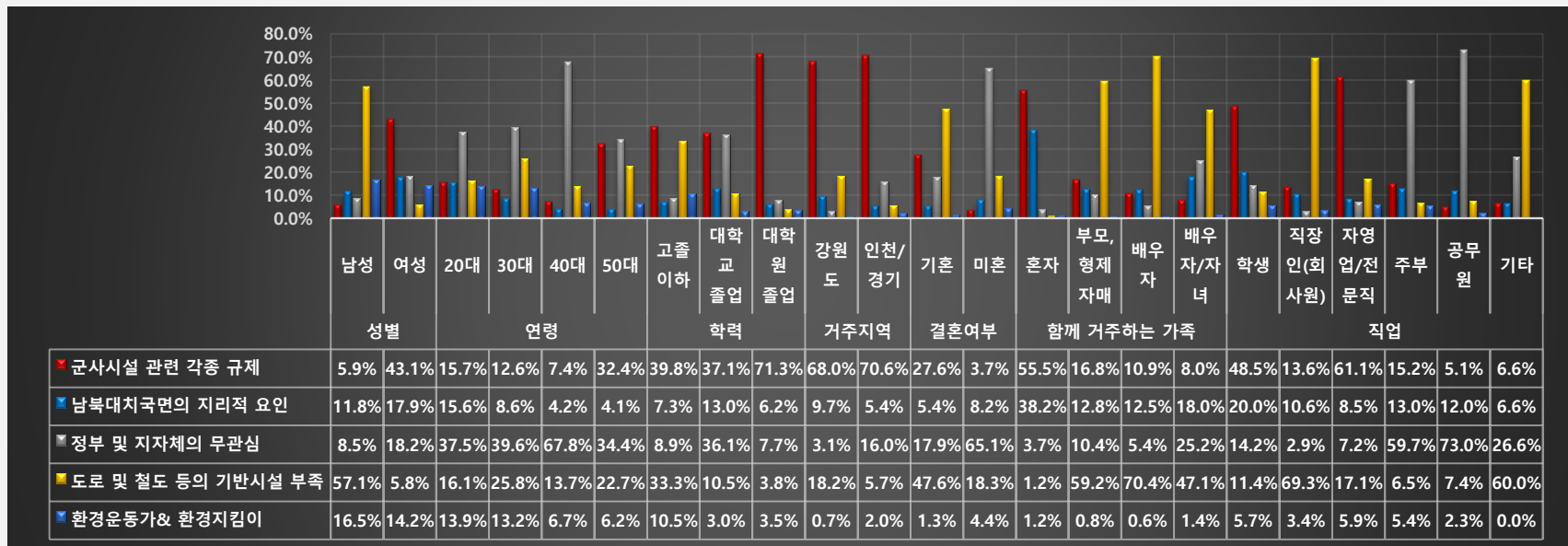
IV. 실증 분석

4.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3)

'접경지역 발전과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 결과

- 남성의 57.1%는 '도로 및 철도 등의 기반시설 부족' 을 여성의 43.1%는 '군사시설 등 각종규제' 를 선택하여 성별 인식차이를 보임
- 기혼자의 47.6%는 '도로 및 철도 등의 기반시설 부족' 을 미혼자의 65.1%는 '정부 및 지자체의 무관심' 을 선택
- 연령별 특성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무관심' 을 접경지역 발전과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가장 높게 인식
- 학력,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군사시설 등 각종규제' 를 최우선으로 선택
- 직업별 특성에서 보면 학생, 자영업/전문직 직종은 '군사시설 등 각종규제' 를, 직장인(회사원)은 '도로 및 철도 등의 기반시설 부족' 을, 주부와 공무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무관심' 을 선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접경지역 발전과 활성화 저해요인]





V. 결 론

1. AHP분석/요약

AHP 분석 틀을 통해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부동산의 최대 유효이용 측면에서 실제 실현 가능한 접경지역 공간활용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전체 접경지역 중 대표적인 발전지역 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우선순위 인식도를 연구함.

연구지표 계층구조화

-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지표를 대, 중, 소로 계층화
- 대분류(1계층) 2항목, 중분류(2계층) 5항목, 소분류(3계층) 15개 항목

요소들간의 쌍대비교 자료수집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시행)

- 계층화된 연구지표를 바탕으로 총 24개 문항의 설문지 구성항목 작성
-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56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AHP 분석 실행
및 일관성 검증

- 자료코딩 후 각 계층 내 연구지표별로 가중치 도출 및 일관성 검증
- 도출된 가중치 분석을 통해 대, 중, 소별 중요 요인들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분석결과 도출
(종합가중치(영향값) 산정)

-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전문분야 등
- 최하위 계층(소분류)에 있는 15개 항목의 최종 우선순위 선정
 - '접경지역 간 연계 교통망 개선', '동서-남북간 연계 도로망 구축'이 1,2위
- 우선순위 상위 항목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결론 도출



V. 결 론

2. 회귀분석/요약

전문가 대상 AHP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한 후 접경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의 회귀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종결론을 제시함.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 전문가 대상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6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 연구모형 수립
- 연구모형을 토대로 6개 연구가설 설정

실증분석 데이터 구축
(2차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시행)

- 4개 카테고리에 총 36개 문항으로 설문지 작성
-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9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 활성화/비활성화 지역 구분, 총 유효표본 744명을 실증분석 데이터로 구축

기초 통계량 분석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본적 인식 수준 분석
- 설문 응답자 특성별로 접경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인식 차이 파악
- 교차분석(카이스퀘어 검정),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 실시

최종결과 도출
(다중 회귀분석)

-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 검증
-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 및 연구가설 검증 : 6개 가설 모두 채택
- '교통 인프라 확충' 이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영향력 1위 차지
- 설문 응답자 특성별 차이점을 세부 분석 후 시사점 및 최종 결론 도출



V. 결 론

3. 연구결과 및 시사점(1)

□ 통일한국 대비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첫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중요정책 과제와 요인은 **교통기반(인프라) 확충**으로 이를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 항만기본계획」,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에 대한 총괄 검토 및 조정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임.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新 성장 동력사업 추진**으로 DMZ에 산업용 로봇 클러스터 구축, 파주~문산 남북한 통일경제특구 건설, 강원, 연천, 철원, 고성 남북교류협력단지 건설 등이 요구됨.

셋째, 남북교류의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의 다양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 회복 기회 부여, 남북교류의 지속성 제고, 남북한 균형 발전과 통일 환경 형성을 위해 **통일대비 평화와 번영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 청소년 평화와 화합, 문화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함.

넷째, 배드타운,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천, 포천, 철원은 접경지역 중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육성이 특히 필요**. 구체적으로 낙후지역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대적 낙후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비 및 확충계획 수립이 요구됨



V. 결 론

3. 연구결과 및 시사점(2)

- **접경지역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의 효과에 미치는 주요변수들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첫째, 접경지역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현재와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상지로 판단되며, **접경지역의 발전은 특정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무엇보다 접경지역 발전과 활성화의 방향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남.북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남.북 사이의 교류 협력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둘째, 독일의 통일에서도 보듯이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되기 19년 전인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접경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을 본격화 함으로써 접경지역 개발을 촉진시켰고 이러한 도시 들은 통일 후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는 바 **우리도 통일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준비가 필요하며, 나아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학계에서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었으면 함.**

셋째, 남.북 경제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접경지역이 발전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주민 등이 협력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반듯이 제작 될 수 있도록 이 연구자료가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으면 함.**



V. 결 론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의 한계점

❖ 연구의 공간적 배경을 대표적인 발전지역(고양, 김포, 파주)과 낙후지역(고성, 양구, 철원)에 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15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함.

❖ 접경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측면을 고루 반영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과 부동산, 토지이용 규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규제만 지표로 활용함

□ 향후 연구과제

❖ 다양한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측면과 부동산, 토지이용 규제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지역 발전과 활성화 분석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접경지역의 인구, 면적 및 인구밀도

(인구는 2017년, 면적은 2016년 기준)

구분	인구(명)			면적 (km ²)	인구밀도 (명/km ² 당)
	총인구	남자	여자		
전국	51,422,507	25,768,055	25,654,452	100,339	512.5
서울특별시	9,741,871	4,757,642	4,984,229	605	16,102.3
인천광역시	2,925,967	1,472,081	1,453,886	1,063	2,752.6
강화군	63,737	32,025	31,712	411	155.1
옹진군	19,294	11,004	8,290	172	112.2
경기도	12,851,601	6,502,723	6,348,878	10,183	1,262.1
동두천시	97,373	48,666	48,707	96	1,014.3
고양시	1,005,102	492,804	512,298	268	3,750.4
파주시	430,650	220,786	209,864	673	639.9
김포시	392,438	202,239	190,199	277	1,416.7
양주시	212,631	109,115	103,516	310	685.9
포천시	161,239	87,185	74,054	827	195.0
연천군	43,990	23,259	20,731	676	65.1
강원도	1,521,386	769,043	752,343	16,827	90.4
춘천시	283,742	139,217	144,525	1,116	254.2
철원군	44,770	23,792	20,978	889	50.4
화천군	24,625	13,589	11,036	909	27.1
양구군	22,355	11,971	10,384	662	33.8
인제군	30,524	16,456	14,068	1,645	18.6
고성군	28,621	15,422	13,199	661	43.3

※ 통계청, 인구 총조사



#2 연도별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 추이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평균	52.2	51.9	52.3	51.1	50.3	50.6	52.5	53.7	53.4
인천광역시	70.4	69.3	71.0	67.3	66.9	64.4	67.0	65.4	67.0
강화군	17.2	13.2	13.5	12.9	13.6	14.9	15.3	16.2	17.3
옹진군	22.7	21.1	18.2	14.3	20.2	20.2	19.2	17.7	16.9
경기도	72.8	72.5	72.6	71.6	67.7	66.6	67.4	70.1	69.9
동두천시	24.2	27.0	20.0	19.6	20.8	18.5	21.9	31.7	29.3
고양시	60.4	53.2	54.6	54.7	53.8	48.8	50.2	53.8	48.9
파주시	54.0	52.4	47.7	46.3	45.2	44.0	43.6	42.5	43.6
김포시	45.8	54.0	55.0	53.5	50.7	52.6	50.0	51.9	46.1
양주시	40.8	37.6	33.3	31.8	33.7	34.5	38.9	38.1	35.3
포천시	34.8	32.1	28.6	29.5	27.4	28.2	29.8	31.8	27.3
연천군	27.0	27.6	23.4	22.5	23.4	24.5	20.4	23.5	21.0
강원도	27.1	27.5	26.9	26.6	26.6	25.9	27.1	29.1	28.7
춘천시	30.7	29.5	28.7	27.9	27.6	26.0	27.7	28.7	30.1
철원군	11.2	10.4	11.5	10.7	10.0	12.1	13.1	12.8	12.1
화천군	14.9	12.9	10.8	11.8	12.0	12.1	17.3	13.7	11.3
양구군	15.4	13.7	14.2	15.2	15.3	17.0	17.2	17.5	14.2
인제군	12.5	13.9	13.1	11.1	12.2	11.5	10.7	12.0	13.9
고성군	13.3	13.8	9.8	11.8	10.9	13.4	13.7	14.9	14.8

※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과



#3 접경지역의 GDRP, 농림어업, 제조업

(단위 : 백만원, 시장가격, 2016년)

구분	지역내 총생산(GDRP)	농림어업	제조업
전국합계	1,641,957,177	31,664,251	439,064,653
인천광역시(전체)	80,859,230	250,713	20,383,626
강화군	1,072,860	133,071	163,054
옹진군	429,594	66,571	10,618
경기도(전체)	373,329,042	3,478,373	125,099,331
김포시	8,529,117	164,396	3,311,965
고양시	19,369,926	21,576	994,699
파주시	14,733,776	213,020	6,998,551
포천시	5,134,676	446,301	1,630,090
양주시	5,254,577	257,673	1,818,874
동두천시	1,647,846	14,453	228,290
연천군	1,071,485	41,203	113,764
강원도(전체)	41,738,165	1,980,234	3,717,085
춘천시	6,484,502	130,631	368,955
철원군	1,592,046	216,631	49,279
화천군	1,211,752	55,569	18,532
양구군	867,428	77,578	18,558
인제군	1,381,148	76,807	24,961
고성군	951,171	63,051	32,962

※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과